



광주디자인비엔날레 5갤러리에서는 지역 기업 제품과 광주 일상 속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광주 기업·일상 속 디자인을 만나다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산업화 디자인 프로젝트 등 소개

‘글로벌’ ‘스타일’ ‘스토아’ 주제... 18일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올해 타계한 이탈리아의 세계적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한 인스나인의 커피잔과 주전자 제품, 지역 대학과 협업해 제작한 지역 화장품 업체 용기 디자인, 광주의 ‘맛’을 상징하는 주먹밥 컬렉션.

지난 7일 개막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5갤러리는 광주를 대표하는 디자인 제품과 일상의 디자인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광주시의 미래비전과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로 글로벌 비즈니스 도약을 꿈꾸는 광주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과 창조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참여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성호)는 지난 2015년부터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디자인비엔날레전의 한 축인 ‘지역 디자인 산업화’에 방점을 찍어왔다. 이전 행사에서 ‘광주 브랜딩’, ‘비즈니스 라운지’를 선보였고 올해는 ‘광주다움, 광주 사람들의 생각’을 주제로 섹션을 꾸었다. ‘글로벌 광주’, ‘스타일 광주’, ‘스토아 광주’ 세개로 나눠 진행되는 전시에는 43명의 참여작가와 72개 기업이 모두 182개 작품을 전시 중이다.

‘글로벌 광주’는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결과물과 지역 전략, 특화산업, 광주발전진흥회 성과물로 구성됐다. 한경화 디자이너와 (주)광주금형의 협업제품 ‘자연의 풍경을 담은 키친롤’, 최태욱 디자이너와 (주)한국스치로폴이 제작한 알록달록한 ‘유아용 EPP의자’, 맛갈스런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한 ‘역사사소, DNA 디자인의 ‘페이퍼 토이’, (주)뉴코에드

윈드의 ‘디지털 배달통’, 안데스커뮤니케이션의 ‘시크릿 시티 컬러링 퍼즐’ 등 다양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스타일 광주’ 섹션 중 ‘광주의 맛’에서는 광주 뷰티&코스메틱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대시각디자인연구회와 디자인네이처, (주)메종 등 지역 뷰티업체가 협업해 제작한 화장품 용기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광주의 맛’에서는 광주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된 주먹밥을 모티브로 한 도시락 패키지 등을 선보인다. 그밖에 ‘스토아 광주’는 광주지역의 다양한 디자인 스튜디오와 기업들의 우수상품을 만날 수 있는 디자인 마켓이다.

전시와 맞물려 광주디자인센터가 1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해

외바이어 수출상담회’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에어가전, 스마트가전, 생체 의료소재부품, 뷰티산업, 디자인산업 등 지역 유망산업군의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우수제품들과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광(光) 기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링크옵틱스, 중형 노면 청소기를 수출하는 ㈜드림씨엔지 등 유망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에는 미국, 스페인, 중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5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한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제품들은 대부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장 제5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상담회 다음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단체관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상담회를 통해 모두 258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김미은 기자 mekim@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한 작품(위)과 최태욱 디자이너의 ‘유아용 EPP의자’



‘경계;Boundary’



‘군함도’

광주롯데갤러리 창작지원전

이세현 작가 초청, 30일까지

이세현 사진 작가의 작품 한가운데는 공중으로 던져 올려진 ‘돌’이 존재한다. 그 돌이 곧 낙하할 곳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들이다. “역사적 장소를 사진을 통해 기록하고, 다시금 질문을 던진다”고 말하는 작가는 그 질문을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던져진 돌을 사용한다. 그가 찾은 역사적 장소는 전일빌딩 옥상 위에서 촬영한 5·18민주광장, 원폭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 등이다.

광주 롯데갤러리가 2019년 창작 지원전 첫 전시로 이세현 작가를 초청했다. 창작지원전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관 이후 20년 동안 진행해온 기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경계; Boundary’다. 시대와 현실, 역사와 사회라는 화두를 안고 작업해온 이 작가는 박제화된 유품처럼 그 거리에 위치한 장소에 돌을 던지는 동적인 제스처를 더해 그곳을 진행형의 공간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묻는다.

사진 속 중앙에 위치한 ‘돌’은 모두 실재하는 장소에서 채집한 것으로 그 자체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대상이 된다. 작가는 5·18민주광장, 일제강점기의 강제노역과 여순사건의 아픔이 지척에 자리한 마래 제2터널, 118명 광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서린 해남의 옥매광산 등 의미 있는 장소들을 발로 밟는다. 또 노근리 상굴다리의 총탄 자국, 최전방 부대에서 바라본 양구의 펀치볼(punch bowl)과 아스라이 보이는 비무장지대, 4·3사건으로 사라져버린 제주 곤울동 사진에선 전쟁과 항쟁의 상흔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밖에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사이에 자리한 군함도, 제주 알뜨르 비행장의 격납고를 통해 작가는 일본과 한국을 읽어내며 고성도의 산불 현장부터 사라져버린 터에 대한 기록인 경주 황룡사지 등 지금까지 영들에 담은 다채로운 시선들을 이번 전시에서 펼쳐낸다.

이 작가는 지금까지 상하이, 대만, 서울, 광주 등에서 11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지난해 열린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제6회 ‘1019사진상’을 수상했으며 대만과 중국 광주시립미술관 국제교류 레지던시, 일본 코카네초 레지던시 등에 참가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위성호 원장 “지역 산업·디자인 기반 형성에 주력”



프로젝트 등 우리 지역 산업과 디자인의 현주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광주디자인센터 위성호 원장(사진)은 “이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관람객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과 공간에 들어선 상징 조형물 등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 좀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광주산업화디자인

번 비엔날레에서 해외와 서울 지역 참여작가들 뿐 아니라 지역에서 작업하는 디자이너들과 기업들의 작품도 눈여겨보길 바란다”고 권했다.

2015년부터 센터가 ‘글로벌 디자인프로젝트’로 진행중인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는 광주시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산업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기획, 디자인, 양산, 마케팅, 유통 전반을 포함하는 컨설팅이다. 센터는 디자인 혁신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시장경쟁력과 매출 향상, 수출 등을 지원해왔으며 18일 열리는 해외수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그 중의 하나다.

“이번 수출상담회를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생태계가 확대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층 다양한 지원 사업을 기획·추진해 디자인을 비롯한 지역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센터는 광주수제공방육성사업, 광주인쇄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스타상품 개발사업, 산업화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 그 결과물들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피아니스트 한상일 리사이틀, 19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한상일(사진)이 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전곡 & 러시아인 시리즈 III’를 공연한다.

‘봄아트프로젝트’가 주최하는 이날 공연은 지난 2016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진행된 공연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전곡 & 러시아인 시리즈 I, II’를 잇는 세 번째 공연이다.

120분 동안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4번’으로 막을 올린다. 라흐마니노프의 ‘10개의 전주곡 제2번’과 ‘제4-7번’을 공연하며, 프로코피에프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해 만든 발레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편곡한 버전으로 무대에 올린다.

한상일은 서울예고 수석졸업, 한국예술종합

학교 예술사과정,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최고 연주자과정 등을 거쳐 부산음악, 해외파견공연, 동양음악 등 콩쿠르에서 1위·대상을 차지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랑스 로랑국립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2017 G-365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 ‘통영 국제음악제’ 등 행사와 함께 바



이다. 전석 3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BIG INNOVATION AWARDS**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공신 영세사단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